Q 전쟁 영웅, 맥아더 장군은 왜 해임되었는가?

A 6·25전쟁에서의 영웅 맥아더 원수가 1951년 4월 12일 트루먼 대통령에의해 해임되었다. 그는 "노병은 죽지 않고 다만 사라져 갈 뿐이다"라는 생도시절불렀던 가사를 마지막 말로 남기고, 52년간의 긴 군 생활을 한반도 전장에서 마감하였다. 그의 해임은 간단치 않은 정치적 그리고 군사적 배경이 작용한 것이었다.

정책 결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

1951년 4월 11일 워싱톤발 라디오 방송은 "트루먼 미국 대통령이 맥아더 원수를 유엔군사령관, 주일 연합군사령관, 극동 미군사령관, 극동

논란거리가 된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는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1951. 3. 7 수원)

미 육군사령관 지위에서 해임했다 ”고 충격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유엔군사령관으로 취임해 남진하고 있던 북한군을 인천상륙작전으로 단숨에 격파해 버린 맥아더 원수가 그 직위에서 해임되는 순간이었다. 전장의 최고 지휘관과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의견충돌이 ‘ 전선사령관 교체 ’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맥아더의 해임을 몰고 온 트루먼 대통령과의 갈등은 중공군이 개입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특히 1951년 3월에 접어들면서부터 국군과 유엔군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38도선을 향해 진격을 계속하면서부터 갈등은 증폭되었다.

국군과 유엔군이 순조로운 진출을 계속하면서 “ 또다시 38도선을 넘을 것인가 ”라는 문제가 세계의 관심사로 떠오른 것이다. 결국 당시 논쟁의 핵심은‘ 38도선을 회복한 후 전략 방침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에 있었다. ‘ 대한민국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가 ’에 따라 전략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이었다.

당시 유엔에서는‘ 대한민국 ’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상황에 따라 달리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 예로 6·25전쟁 이전에는 ‘ 한국정부가 지배하고 있는 38도선 이남 지역 ’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국군과 유엔군이 인천상륙작전을 통해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두고, 북한군을 괴멸시킨 후에는‘ 한반도 전역 ’이라고 해석했다.

종전이냐 확전이냐의 갈등

이러한 관점에서 전쟁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정부가 대한민국의 범위를‘ 38도선 이남 지역 ’으로 해석하면, 이제는 종전을 위한 전략을 추구해야 하고, 반면에 ‘ 한반도 전역 ’으로 해석하면 압록강까지 진격해야

마지막으로 한국 전선을 찾은 맥아더가 리지웨이 미8군 사령관과 이야기를나누고 있다.(1951. 4. 3 강릉)

하므로 확대전략을 구사해야 하는 것이다.

당시 워싱턴 수뇌들의 생각은 전자의 경우에 속했다. 그들은“ 중국이 직접 전쟁에 참가하고 있는 마당에 압록강까지 진출한다고 해도 전쟁이 끝나겠느냐? ”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 또‘ 진정한 적은 소련이며 언젠가는 소련이 개입하게 될 것 ’이라는 불안감도 있었다.

당시 미국으로서는 압록강까지 진출할 수 있다면 금상첨화겠으나,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38도선 부근의 북쪽까지 공산군을 몰아내고 휴전을 한다면 대의명분도 서고, 전쟁목적도 달성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반면 맥아더 원수는 전쟁에서의 완승을 원하고 있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한 이상 38도선은 무의미하며, 압록강까지 진격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는 것이 맥아더 원수의 일관된 지론이었다.

확전을 제한하고자 하는 워싱턴의 명령에 맥아더 원수는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맥아더 원수는 전문에“ 더 이상 제한을 가하지 말라. 현재의

제한 사항만으로도 적을 북한지역에서 몰아내는 데 곤란을 느끼고 있다 ”고 답변했다. 이에 워싱턴은 다시 한번 그의‘ 확전의지 에 제동을 걸기 위해 서둘러서 대통령의 성명을 준비했다.

맥아더 장군의 확전주장과 반격작전

트루먼 대통령의 성명에 앞서 문제가 발생하고 말았다. 국군과 유엔군이 38도선에 도달할 때쯤인 3월 23일과 24일 맥아더 원수가 기자회견을 한 내용이 문제가 되었다.

회견에서 맥아더는“ 유엔이 현재의 군사적 제한조치를 풀고 군사행동을 중국의 해안선과 오지까지 확대한다면, 중국은 곧 군사적 붕괴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다 ”고 주장했던 것이다. 이것은 공산군과의 협상을 통해 전쟁을 종결지으려던 트루먼 대통령을 곤경에 처하게 만들었다.

더구나 맥아더 원수는 그 발언에 이어 반격작전을 강행하였다. 맥아더의 마지막 결단이었다고 할 수 있는 38선 이북으로의 진출에 대한 결심은“ 정지보다 전진이 유리하다 ”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마침내 고심을 거듭한 트루먼 대통령은 1951년 4월 12일‘ 맥아더 원

퇴임 회견을 하고 있는 맥아더 장군

수를 해임 하는 극약처방을 내렸다. 그리고 맥아더 원수 후임으로는 제8군사령관 리지웨이 장군을 임명하였으며, 제8군사령관에는 밴플리트 중장을 임명하였다. 유엔군은 지휘관이 교체됨에 따라 제8군은 물론이고 전쟁 자체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

맥아더 원수는 해임이후에도 많은 일화를 남겼다. 미국 국민들은 귀국한 맥아더 원수를, 아이젠하워를 환영했을 때보다도 2배 정도의 큰 규모로 환영하였다는 것은 후세의 화제거리가 되었고, 또 흔히 말하는 맥아더 청문회라고 불리는 상원의 군사외교합동위원회에 소환되어 여러 가지 화제를 낳았다.

그러나 그가 너무 지나칠 정도로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 변호하였고 나아가서는 대통령까지 공격함으로써 세상의 빈축을 사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하여 군인으로서의 그의 위대함에 그림자를 지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상륙작전과 같이 한국전장에서 보여준 그의 신화는 전쟁 역사상 거의 전무후무한 일이었다고 평가된다.

생각해 봅시다!!

1. 맥아더 원수는 트루먼 대통령과 왜 갈등하였는가?
2. 맥아더 장군이 해임된 군사적인 이유는 무엇인가?